음악으로 되살린 '낭쉐'… "제주만의 봄"

올해 여섯 테마로 구성한 '제주 헤리티지' 시리즈 진행
12일 새해 첫 정기연주회… 기타리스트 박규희와 협연

상임지휘자 박승유 기타 박규희

제주도립 제주교향악단이 2026년 정기연주회로 '제주 헤리티지' 시리즈를 선보인다. 제주 고유의 이야기를 교향악이라는 예술 언어로 풀어내는 프로젝트다.

올해 정기연주회는 '낭쉐', '제주교향악단', '섬의 지층', '천 하룻밤의 제주 설화', '소리의 뿌리', '영웅' 등 제주의 자연·생활·문화·기억 자산을 주제로 한 여섯 가지 테마가 이어진다. 이 안에는 올해 정기연주회를 제주 문화 브랜드로 확장하고 관객 저변을 확대에 나서겠다는 제주교향악단의 의지가 묻어있다.

그 첫 번째 무대는 이달 12일 오후 7시 30분 제주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열리는 제181회 정기연주회다.

올해 첫 정기연주회인 이번 시리즈 공연의 부제는 '낭쉐'다. 탐라의 입춘 의식에서 풍요를 기원하던 소 모양 목조 조형물 '낭쉐'의 상징을 음악으로 되살리며 제주의 방식대로 새봄을 맞이하는 음악회로 문을 연다.

지휘자 박승유의 지휘 아래 제주교향악단이 제주의 기억과 정서를 음악으로 풀어내는 무대를 전한다. 또 세계적인 기타리스트 박규희가 협연에 나서 제주교향악단과 정통 클래식 기타 협주곡의 진수를 선보인다.

스페인 작곡가 파야의 발레 '사랑은 마술사' 중 원초적인 리듬과 강렬한 색채인 '불의 의식 춤'으로 서막을 연다. 이어 기타리스트 박규희와 함께 로드리고의 '아란후에스' 기타 협주곡을 들려준다. 미국적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코플랜드의 발레 '애팔래치아의 봄' 관현악 모음곡, 강렬한 리듬의 히나스테라의 발레 '에스탄시아' 춤곡이 이어진다.

예매는 제주도 문화예술진흥원 누리집에서 하면 된다. 관람료는 일반 5000원(단체 10인 이상 4000원), 청소년 3000원이다.

박소정기자 cosorong@ihalla.com

지난 6일 제주시 원도심 제주아트플랫폼에서 열린 제주문화예술재단 청사 이전식. 제주도 제공

원도심으로 간 문예재단 "문화예술 생태계 복원"

아트플랫폼서 청사 이전식

제주문화예술재단이 원도심으로 터를 옮겼다.

재단은 지난 6일 제주시 원도심 삼도2동에 있는 제주아트플랫폼에서 청사 이전식을 열고 '원도심 시대'의 문을 열었다. 올해 창립 25주년을 맞은 재단은 제주아트플랫폼으로 청사 이전을 기점으로 문화예술 생태계 복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날 청사 이전식은 제주아트플랫폼 내부 투어를 시작으로 이전 경과보고, 내빈 축사, 제주 고유의 이사 풍습을 재해석한 '성주풀이' 기념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오영훈 지사는 이날 "제주아트플랫폼을 기점으로 원도심 일대가 문화예술로 꽃피우는 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석윤 재단 이사장도 "재단은 이곳 원도심에서 지난 25년의 성과와 함께 미흡한 점도 보듬으며 새로운 미래의 발전 전략을 수립해 나가겠다"면서 "당장의 성과보다는 미래를 내다보며 문화예술계의 생태 초석을 굳건히 다지는 거점 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재단이 2018년부터 추진해 온 제주아트플랫폼 조성사업은 제주시 삼도2동에 있는 지하 3층·지상 8층 규모의 옛 아카데미극장(재밋섬) 건물을 매입하고 리모델링을 해 복합문화공간으로 만드는 사업이다.

재단 사무실은 2층에 있다. 3층에는 공연예술 연습장을 대여하는 '아르코공연연습센터'가 지난 2024년 개관해 운영되고 있다. 현재 리모델링 공사가 계속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1층에는 예술인의 창작활동 전 과정을 지원하는 '제주예술인복지지원센터'가 들어서고 예술인과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열린공간을 조성할 예정이다. 향후 상층부에는 공연장과 발표 공간을 추가로 조성할 계획이다. 박소정기자

호끌락 문화학교 모집
어린이 체험 프로그램

서귀포시는 올해 상반기 '우리 동네 호끌락 문화학교'에 참가할 학교·마을을 이달 13일까지 모집하고 있다.

호끌락 문화학교는 미래세대인 어린이들이 지역 고유문화의 가치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체험형 문화교육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기존에 해오던 노지영상교실, 마을사진교실, 노지미술교실, 생태예술교실, 노지음악교실을 운영하고 연극(뮤지컬)교실을 새롭게 신설한다. 운영 횟수도 당초 5회에서 8회로 확대한다.

상반기에는 14곳에서 이뤄진다.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 문화예술과(전화 064-760-2571~2)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지난 6년간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해왔으며 총 56곳에서 844명의 초등학생들이 참여했다. 박소정기자

영화觀 하우스메이드

부탁 하나 더 들어줘

영화 '하우스메이드'

특유의 고즈넉한 분위기가 좋고 그곳에서 상영되는 영화들을 거의 다 챙겨보는 나에게 독립예술영화관에 가는 건 일상적인 루틴에 다름 아니다. 예술영화관의 직원으로 일하던 시절 나의 도피처는 멀티 플렉스였다. 극장 안에서 팝콘통에 초코볼을 털어 넣고 뚱뚱한 콜라를 손에 들고 극장 의자에 눕듯이 앉아 기다렸다. 그저 즐거움으로 가득 찬 시간을, 나를 홀리게 만들어 줄 엔터테이닝한 세계를.

폴 페이그 감독은 기가 막히게 웃기고 충분히 사납고 끝까지 매혹적인 여성 캐릭터들의 세계를 감칠맛 나게 그려내는 연출자다. 달콤함이 기본값인 로맨틱 코미디라는 장르에 칠리 소스를 들이부은 그의 작품들은 적당히 달고 넘치게 매웠다. 그의 작품들은 나에게 팝콘통 하나만 손에 들려주면 두 시간이 즐거운 나들이에 최적의 선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폴 페이그의 신작 '하우스메이드'는 예고편만 봐도 그 아는 맛에 군침을 흘리게 되는 작품이었다. 전세계적으로 히트한 원작소설을 영화화한 이 작품은 '그림 같은 집, 완벽한 남편, 은밀한 아내 그리고 수상한 가정부'라는 키워드로 그 서사를 충분히 짐작하게 만든다. 그런데 폴 페이그의 손길이 닿았다고 하니 기대하는 것이 조금 달라졌다. 안온해 보이는 집은 아마도 인물들의 난장을 통해 뒤틀릴 것이고 각각의 개성으로 중무장한 캐릭터들은 굳이 범상한 우정이나 사랑으로 서로의 관계를 끝내지 않을 것이다.

영화는 예상대로 흘러갔다. 그림 같은 집에 완벽한 남편과 함께 사는 여자 니나(아만다 사이프리드)가 있다.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인공적인 미소의 니나가 집 안으로 어딘가 비밀이 많아 보이는 밀리(시드니 스위니)를 가정부로 맞이한다. 그런데 자로 잰 듯 반듯하기만 하던 니나의 미소가 일그러지기 시작한다. 잠재워 놨던 인물들이 욕망들이 이불 밖으로 두서없이 뛰어나와 청소가 끝난 거실을 마구잡이로 헝클어트리기 시작한다. 누가 보기에도 완벽해 보이던 집(house)을 만들었던(made) 모든 요소들이 망가진다.

'하우스메이드'는 '요람을 흔드는 손', '위험한 독신녀' 등 2000년대 이전 헐리웃 스릴러 특유의 장르적 재미를 영화의 전반부에, 시대의 흐름에 걸맞은 여성 캐릭터들의 모습을 후반부에 배치하며 스릴러 장르물을 선호하는 지금의 여성 관객들에게 안성맞춤의 즐거움을 선사한다. 아만다 사이프리드의 '퀸카로 살아 남는 법'에서부터 시드니 스위니의 '이매큘레이트'까지는 무려 20년의 시간 차이가 있는데 '하우스메이드'에는 이 두 배우가 따로 또 같이 겪어온 로맨틱 코미디와 호러가 함께 녹아들어 있기도 하다. 외상과 내상을 함께 입은 이들의 얼굴에 희미하게 어린 미소가 '하우스메이드'의 마지막 플레이팅임을 알았을 때 비로소 포만감이 완성됐다. 입맛을 다시며 극장 안을 나왔다. 이런 영화 한 편 더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며.

진 명 현
독립영화 스튜디오 무브먼트 대표(전문가)